

가을철 발열 질환 예방



개요

가을철 발열 질환인 쯤쯤가무시증, 렘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은 동물의 배설물에 의해서 전염병으로 사람과 가축 양쪽에 이환되는 감염병이다. 법정 제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애의 예방을 이행하도록 되어있다. 야외작업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일반인에게도 발생수가 증가하고 있다.

종류 및 특성

	쯤쯤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렘토스피라증
확인된 숙주	야생들쥐(등줄쥐)	등줄쥐, 집쥐	들쥐, 집쥐, 족제비, 개
감염경로	관목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전파	들쥐 등에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배출된 균이 점막이나 상처를 통해 전파
주요증상	두통, 열, 발진, 결막충혈, 오한, 가피형성	고열, 두통, 복통, 신부전, 출혈	고열, 두통, 오한, 눈의 충혈, 각혈, 근육통, 복통
발생시기	9~11월	10~12월	9~11월
잠복기	6~21일	9~35일	4~19일
사망률	약1%	약 7%	약 20%
예방접종	없음	백신 총3회 접종 •1차 접종 •2차 접종 : 1차 접종 1개월 후 •3차 접종 : 1차 접종 12개월 후	유행지역에서는 약을 주 1회 투여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권장하지는 않음

예방조치사항

작업전	•긴 소매옷 및 긴 바지 작업복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
	•벌레 쫓는 약인 기피제 사용
	•예방이 가능한 감염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작업중	•감염병 발생 우려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제한
	•풀밭에 옷을 말리거나 눕지 않고 휴식할 때는 돛자리 사용
작업후	•작업 후 반드시 목욕 실시하고 작업복을 세제로 세탁
	•이상 증상 발생시 의사 진료 실시

